

경기 안성
은기농장 대표

김희종



축산으로 찾은 희망, 정성으로 키운 결과

고객홍보처

2018년 1월 어느 날, 새해의 태양을 받으며 경기도 안성의 은기농장을 향했다. 2017년도 제15회 전국축산물품질평가대상에서 한우 부문 최우수상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을 수상한 김희종 대표를 만나기 위해서다.



농장 입구에 나와 웃으며 맞아주는 김희종 대표가 오랜만에 만난 친척 어른신이라도 되는냥 묘하게 반갑다. 그런데 그런 김 대표에게 본능이 건넨 첫 문장은 “이렇게 맞아주시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안 추우세요?” 였다. 탁 트인 곳에 위치한 은기농장 옆 안성천이 유독 눈에 띄었기 때문이다.

“안성천이 있어 바람이 항상 불어주니 공기가 좋다. 안으로 들어가야 농장인지 알지, 이렇게 보면 냄새도 거의 안 나지 않은가?”

단순히 안성천 덕이라고만 얘기하기엔 부족하다. 워낙 돼지에 비해 냄새도 적고 깨끗한 소 농장이지만, 외부에서 들여다보면 깔끔해 작은 공장이라고 해도 믿음직한 모습이었다. 그때 농장 중앙 기둥 위쪽으로 ‘친환경 인증 축사’라는 패가 걸린 것이 보인다.

“안성마춤한우(안성마춤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 소속인데 조합에서 친환경 인증을 받았다. 어설피 할 바엔 안 하는 게 낫지, 기왕할 거 제대로 하는 게 낫지 않겠나. 농가들을 보면 개중에는 지저분하니 어떻게 저렇게 해먹이나 싶은 곳도 있다. 그런데 잘 하는 이들은 때 되면 밥 주고 바닥 치우는 건 으레 하는 일이라 생각한다. 꼼꼼하게 챙기고 농장을 살핀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이들이 결과도 좋게 나온다.”

▼ 보는 것만으로도 배부른 1년 치 먹거리

직접 얘기하진 않았지만 김희종 대표는 누가 봐도 후자. 정성들여 농장을 가꾸는 쪽이다.

농장이 집에서 멀지 않다는 그는 못해도 하루 3~4번은 농장에 와서 살핀다. 영양성분을 고려해 마련한 자체 식단에 따라 소들의 끼니를 삼시세끼 때 맞춰 챙기고 물도 깐깐히 골라 먹인다. 본인은 지하 2~30m에서 끌어올린 건수를 마신다면서 소에게 먹이는 물은 수질검사를 거친 70m 지하 암반수다. 그것도 데워서.

게다가 사료를 줄때면 혹시 소들이 움직이다 오물이라도 튀어 들어갔을까 싶어 손으로 사료통을 다 쓸어내고 사료를 준다. 이쯤 되면 어지간한 사람 보다 소가 더 나은 대접을 받고 사는 셈이다.

이 모든 일을 그는 다른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고 손수 다 한다. 그렇게 관리하고 있는 소가 현재 149두. 1년에 보통 30두 정도 출하하는데 일관사육을 해 출하한 만큼 생산 못하면 송아지를 1~2마리 사올까, 4~5년 전부터 기존의 소들로 150두 안팎의 규모를 유지하고 있다. 규모가 크지 않다지만 모든 일을 손수 다 하는 것은 소와 축산에 대한 애정과 열정 없이는 어려운 일이다.

여기서 의외인 점은 현재와 같이 본격적으로 농장을 운영하기 시작한 것이 대략 2007~8년 즈음, 10년여 사이에 일어난 변화라는 점이다. 그전엔 농사사, 밭농사 등을 했었는데 농사로는 어렵겠다 싶어 대안을 찾다가





▲ '주인님이 찍자면...' 모여드는 소들

축산 일에 눈뜨게 됐다고.

처음엔 집에 있는 작은 우사에서 20두를 키우며 논농사를 같이 하는 방식으로 시작했다는 그는 논농사 보다 소가 낫겠다는 확신을 가지고 곧 축산으로 전업했다. 하지만 냄새 등의 환경 문제로 민원이 발생해, 이를 계기로 현재와 같이 축사를 짓고 사육 규모도 키워 옮겼다.

땅 있던 것들을 다 팔아 투자해도 녹녹치 않아 이후 한동안 고생해야 했다고 회고하던 김희종 대표. 그런데 그 와중에도 그는 어려운 길을 골라갔다. 지금의 사육 방법을 경험을 통해 모두 수립한 것이다.

소들에게 주는 사료나 변경 주기, 알팔파 건초를 사료 위에 0.5~1kg 정도 같이 뿌려주는 것이나 무슨 일이 있어도 필히 챙겨 먹인다는 미네랄 섞인 소금 등 배운 것도 있지만 모두 실천해보고 본인에 맞는 방법을 터득했다. 그렇다보니 때론 시행착오를 겪을 때도 있었지만 끊임없이 새로운 방법을 연구하고 꾸준히 노력해 스스로 답을 찾았다.

하물며 이것도 고정적인 것은 아니다. 그는 다 같이 8월에 태어난 소라고 해도 덩치가 작은 애들은 작은 것끼리, 큰 것은 큰 것끼리 4단계로 나눠 관리하며 처지는 소도 고루

먹고 자랄 수 있게 안배하고 있다. 이러자니 소마다 다 다르게 먹이게 돼 매번 수작업으로 사료나 사육 환경을 챙기느라 하루가 바쁘지만 “고생이라고 생각하면 절대 못한다”며 자부심을 보이는 그다.

“소 키우는 게 힘들어도 소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소 눈이 얼마나 순한지, 그렇게 마음이 편하다. 내가 농장에 들어가면 소들이 일어나 오고, 주인이 옆에 있음 소도 다 알아보고 다가와 활아주고 한다. 처음엔 힘들기도 했지만 지금은 그렇게 하길 잘 했다 생각한다.”

아닌 게 아니라 사진 촬영을 위해 다가서자 우르르 도망가는 소들을 보며 “이 녀석들아. 사진 예쁘게 찍어준다잖아. 이리들 와봐”라고 손짓하는 웃음 띤 그의 모습에는 즐거움이 묻어났다. 필자의 한 발짝에는 민감하게 반응해 우사 끄트머리까지 도망갔다가 그가 다가가 손을 내미니 소인지 개인지 슬슬 다가서는 소들의 모습에 거짓은 없었다.

“이번에 상 탔다고 여기서 만족하면 몇 년 후 꼴찌가 될 것이다. 지금 등급 잘 나온다고 자만할 것도 없고. 나는 앞으로도 새로운 방법을 찾아 끊임없이 시도할 것이다. 더 좋은 상? 기왕 축산일 하는 거 계속 도전해 봐야지 않겠나.”